

광주 사립고서 기말고사 답안지 유출 파문

2학년 1학기 4과목 확보 의혹
“찢겨진 쪽지와 답안 일치” 주장
시교육청 “사전 유출 정황 없어”
경찰, 해당 학생 입건해 조사 중

광주의 한 사립고등학교에서 기말고사 답안지가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해당 학교는 4년 전 시험지가 통째로 유출돼 파문에 휩싸였던 학교로 이번에도 답안지 유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만큼 수사결과에 따라

파문이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25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광주 서구에 위치한 A 고등학교는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때 답안지가 유출됐다는 학생들의 주장이 제기되자, 관련 사실을 확인한 후 지난 20일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A 고등학교는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기말고사를 치렀는데 한 학생이 4과목 답안지를 미리 확보해 시험을 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답안지 유출 의혹을 제기한 학생들은 해당 학생이 시험시간이 끝나고 쓰레기통에 버린 쪽지를 확인해보니 해당 과목들의 답안과 일치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11일에는 지구과학과 한국사 시험이 치뤄졌고, 12일과 13일에는 각각 수학Ⅱ, 생명과

학 시험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학생은 지구과학과 수학Ⅱ 모두 만점(100점)을 받았고, 한국사는 93점을 획득했다.
특히 생명과학은 86점을 받았는데, 시험 도중 오류 출제된 생명과학 4개 문항의 내용이 수정되면서 정답이 정정됐기 때문인 것으로 시교육청은 파악했다.
시교육청은 생명과학 4문제가 시험시간 중간에 정정되지 않았다면 100점을 받았을 것이라고 봤다.
해당 학생의 1학년 내신 등급은 2등급 대로 내용이 수정되기 전 답을 적어 낸 것으로 전해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지난 18일 학부모 등이 답안지 유출과 관련해 시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했고, 다음날인 19일 해당 학교를 방문해 현장

조사를 벌였다”며 “지난 13일 학생들이 쓰레기통에 발견한 찢어진 쪽지를 들고 교장실에 찾아가 의심 신고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기말고사 시험지와 답안지의 경우 CCTV가 설치돼 있는 금고에 보관돼 있는 등 절차대로 진행됐고, 사전 유출된 정황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며 “재시험과 성적 등록 여부는 경찰 수사결과에 따라 판단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교사 노조도 이날 성명을 내고 “지난 시험지 유출사고 때 유출에 가담한 행정실장 외에는 어느 누구도 처벌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났다”며 “당시 교장과 교감, 연구부장 등이 처벌을 단단히 받았다면 이번 일은 다시 겪지 않아도 됐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중대 사안에 대해 시교육청은

쉬쉬하고 있었고, 시험 관련 유출사건이 또 터진 것은 해당 학교 내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다”며 “사학비리 예방 감시단을 발족해 사립학교 비리 예방 활동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서부경찰서는 이날 해당 고교 2학년에 재학 중인 B군을 이번 사건 피의자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성적 평가 등 학사행정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를 B군에게 적용했다.
B군 주거지에서는 이날 오전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 집행도 이뤄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단계”라며 “답안지 유출이 있었다면 그 경위와 공범 여부도 향후 수사를 통해 밝혀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학교에서는 2018년 3학년 1학기 중간·기말고사 시험문제가 통째로 유출돼 지역사회에 파문을 일으켰다.
당시 행정실장과 학부모가 구속돼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받았다. /최환준 기자

광주·전남 휴일 2천명대 확진

광주·전남에서 2,000명대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
25일 방역당국에 따르면 전날 하루동안 광주 1,107명, 전남 992명 등 총 2,099명이 코로나19 진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았다.
광주·전남지역 전날 확진자 2,099명 기록은 지난 23일 3,446명(광주 1,670명·전남 1,776명)에 비해 1,367명 감소했다. 이는 코로나19 검사 병원이 휴일에 운영을 하지 않아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광주 확진자 가운데 1,081명은 지역감염, 나머지 26명은 해외유입 사례다.
사망자는 1명 발생해 누적 573명이며, 위중증 환자는 없다.
시설과 기관을 매개로한 집단감염은 발생하지 않았고, 선행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중심으로 감염이 확산하고 있다.
전남에서는 22개 시군에서 모두 감염자가 나왔다. 지역별로 여수 175명, 순천 158명, 목포



광주·전남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수가 2,000명을 넘어선 25일 오전 광주 북구선별진료소에 검진을 받으려는 시민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김태규 기자

145명, 나주 103명, 광양 100명 등 시 단위 지역에서도 다수 확진자가 발생했다.
무안 52명, 영광 46명, 장성 34명, 담양 23명, 곡성·해남 20명, 고흥 18명, 장흥 17명, 화순 15명, 신안 14명 보성 12명, 구례·완도 11명, 함평 8명, 강진 4명, 영암·진도 3명 등이다.
사망자는 발생하지 않았고 위중증 환자는 8명이다. /임채민 기자

지스트, 종양세포 악성화 메커니즘 규명

남정석 교수 연구팀, 항암제 발굴
국내 연구진이 종양세포가 악성으로 변화하는 새로운 메커니즘을 제시하고, 이를 억제하기 위한 키나아제 억제 저분자 항암제를 발굴하는데 성공했다.
이번 성과는 종양세포의 악성화 과정을 제어

해 난치성 질병을 근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개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26일 지스트(광주과학기술원)에 따르면 생명과학부 남정석 교수 연구팀은 악성종양 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단백질인 DCLK1이 염증성 효소인자를 통해 종양미세환경 내의 친종양형성(pro-tumor) 신호 경로를 활성화시

켜 종양세포의 악성화를 촉진한다는 것을 규명했다.
지스트 연구팀은 한국화학연구원과의 협업을 통해 가상현실(VR) 기반의 분자 모델링 연구를 수행, DCLK1의 활성을 억제하는 저분자 유효화합물을 발굴했다.
연구팀은 마우스(생쥐) 실험을 통해 DCLK1 키나아제 활성 억제 저분자 유효화합물이 종양세포 악성화를 효과적으로 제어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종양세포-종양미세환경

상 상호작용에 의한 악성화 치료기술 확립에 실험적 근거를 제시했다.
특히 단백질체 분석을 통해 악성종양과 염증을 매개하는 신호전달 단백질(XRCC5)을 처음으로 규명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장암 마우스 모델에서 XRCC5에 대한 유전자 치료를 통해 두 단백질(DCLK1 및 XRCC5)에 대한 매개 신호 억제에 종양세포의 악성화를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 /최환준 기자

“한전공대 설립 적법했나” 한번, 특허 시비 감사청구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이 한국에너지공과대학(한전공대) 설립 과정의 적법성과 전력사업기반기금 지출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한변은 25일 보도자료를 내 “한전의 적자 규모가 올해 1분기에만 7조7,869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진 상황에서 한전공대 측이 정부에 무리한 비용 부담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단체는 “한전공대는 설립 추진 때부터 갖가지 논란과 시비 대상이 됐다”며 “재정 지출에 관한 예비적 타당성의 적법성 논란, 설립 인가와 관련한 교육부의 특허 논란, 시공사인 부영주택에 대한 특허 시비 등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변은 또 “도서·백지 전력공급지원 사업을 위해 조성된 전력산업기반기금은 그 재원을 전기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데, 최근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는 등 재정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며 이에 관해서도 감사를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이율리 등 부적절하고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재정건전성이 위협받는 것 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장성 토지(매매, 분양)	상무지구(상가매매)	경매교육 [특수전문반 기초반,중급반]						
광주에서 20분 (6M도로인접) 장성댐 (호) 2분, 장성 IC 5분 총 1760평 (150평, 200평, 500평, 분할가능) [전원주택,물류창고,주말농장,별장,투자적합]	1) 감평가 (시세) 9억 매매가 7억 (용4억가) 2) 월수익 350만 (보4천) 3) 평수140평, (전용100평) 사무실, 빠, 유흥주점, 모든업종가 (즉시입주가,시비없음,시설완비)	1) 특수반모집 → 유치권, 법지, 지분, NPL(전문) 2) 전문반모집 → 직업으로 하실분 (경매 배우면서 수익가능) 3) 기초반, 중급반, 특수반 ⇒ 평생 회원반 <table><tr><td>광주</td><td>광산구 생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td></tr><tr><td>전남</td><td>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td></tr><tr><td>시외</td><td>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td></tr></table>	광주	광산구 생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
광주	광산구 생암동(근린상가) ▶ 감평가 5억1천 → 최저가 3억6천 (7/14) 광산구(근린상가) ▶ 감평가 2억1천 → 최저가 1억5천 (7/27) 광산구 장덕동(아파트) ▶ 감평가 4억5천 → 최저가 3억 1천 (8/04) 서구 매월동(임야)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03) 북구 용봉동(근린상가) ▶ 감평가 32억 → 최저가 18억 (8/04) 서구 처평동(근린상가) ▶ 감평가 6억2천 → 최저가 3억5천 (8/3) 동구 윤림동(근린주택)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4억5천 (5/26)							
전남	장성군 서삼면(농지) ▶ 감평가 1억4천 → 최저가 8천(8/03) 담양군 대덕면(임야) ▶ 감평가 5억2천 → 최저가 3억7천 (8/3) 나주시 빛가람동(근린상가) ▶ 감평가 3억2천 → 최저가 1억1천 (8/3) 담양군 월산면(임야) ▶ 감평가 4억7천 → 최저가 3억3천 (8/3)							
시외	경남 김해시(숙박시설) ▶ 감평가 28억 → 최저가 14억 (7/22) 전남 영암군(근린시설) ▶ 감평가 6억4천 → 최저가 2억8천(7/19)							
010-6670-9800 (062-382-5500)								